

잠이 안 올 때 사람들은 왜 양을 셀까?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상징으로 보는 세상

김남예 지음

한번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잠을 못 이루는 주인공이 양을 세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는 어린 시절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 양을 세 보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양을 세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영어 단어 'sheep' (양)과 'sleep' (잠)의 발음이 비슷해서라는 것이다. 또한 양을 세는 반복이 여타의 잡념을 없애주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양을 떠올리면 드넓은 푸른 초원이 떠오른다. 풀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의 무리는 더욱이 평화로워 보인다. 더욱이 양털은 폭신함과 따뜻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숙면과 연관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양 꿈을 꾸면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초야에 묻혀 지내던 이성계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양을 잡으려 했는데 그만 빨과 꼬리가 빠져 놓쳐 버린다. 이성계는 무학대사에게 꿈 이야기를 꺼냈는데,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는다. 이



성계는 양을 잡은 것도 아니고 놓쳤는데, 어떻게 왕이 되는 꿈이냐며 믿지 않는다. 무학대사는 '양(羊)에서 빨과 꼬리가 떨어졌으니 왕(王)이 된다'고 풀이해준다.
이렇듯 양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길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김남예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가 펴낸 '상징으로 보는 세상'은 상징을 모티브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다. '모든 이야기는 상징으로 통한다'는 것. 그동안 저자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한 동물 상징 교육 내용 연구' 등의 논문을 집필했고 SERIPRO에서 강의하는 '상징의 문화사'는 누적 조회수 3만6000회를 넘었다.
일상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징을 활용한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이며, 제주를 대표하는 사물은 돌하르방이다. 그러나 말로 상징을 설명해보라 하면 쉽지 않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상징'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지(標識)·기호·물건 따위"로 풀이해 있다. 한자로 '상징' (象徴)은 '코끼리 상(象)'에 '부름 징(徵)'으로 표기된다. 말 그대로 '코끼리로 부른다'이다. 즉 '상'이라는 글자를 코끼리로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한자가 만들어진 중국에서도 코끼리는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다. 희귀하다

보니 실제 모습을 구체화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가. "코끼리의 긴 코와 큰 귀를 본뜬 글자를 만들어 코끼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코끼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은 일견 타당하다.
또 다른 상징의 예를 보자. 마블 영화의 영웅 중에서 토르는 인기 있는 캐릭터다. 원래는 북유럽 신화의 최고의 신 오딘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옛날 북유럽 사람들은 토르가 마차를 타고 하늘을 달리면 천둥이 치고 물니르를 세계 내던지면 번개가 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엄청난 무게의 망치를 가볍게 휘두르는 토르는 절대적인 존재다. 물니르는 토르가 항상 들고 다니는 망치로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
중국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반고도 "하늘을 만들 때 망치를 썼다"는 전설상의 주인공이다. 반고는 천지개벽 이후 세상에 나왔다는 전설상의 천자인데 "망치의 강력한 힘이 악과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과 왕권까지 상징하게" 되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 신화 속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도 망치를 사용했다. 불의 신이기도 한 그는 불과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다. 그의 망치는 '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로서의 기술'을 상징한다.
이밖에 책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쩌다 허리로 부르게 되었을까?', '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왜 부자가 된다고 할까?', '블루와 푸른색은 무엇이 다르을까?' 등 상징과 연관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창비·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풍향계 위의 닭은 사람들을 깨우쳐 교회로 이끌어주는 역할을(사진 왼쪽), 민화 속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수호신 역할을 상징한다.



민화 속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수호신 역할을 상징한다.

위대한 경제학 고전 30권을 1권으로 읽는 책

홍기훈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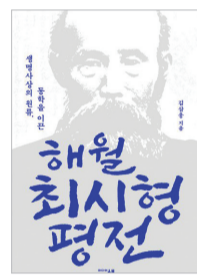
'국부론', '인구론', '자본론', '경제학 원리', '인적 자본', '가치와 자본', '풍요한 사회', '넋지' 등...
익히 알고 있거나 한번쯤 들었을 법한 경제학의 고전들이다. 사실 경제학 하면 딱딱하고 막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제를 모르면 현대사회에서 존립할 수가 없다. 풍요로운 삶 이전에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도 어려울 만큼 경제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요즘처럼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모든 이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의 '위대한 경제학 고전 30권을 1권으로 읽는 책'은 수백 년 역사가 알려주는 경제 위기와 부의 본질에 대해 파고든다.
저자는 경제학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지침서로 30권의 고전을 추천한다. 고전이 기술되었던 시대상을 중심으로 책이 쓰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책의 중요한 내용과 그것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분석한다.
오늘날 금리 인상과 맞물린 대출금, 소비, 급여 등의 문제는 경제와 경제학의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 저자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서 인용한 구절이 눈에 띈다. "18세기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피케티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한다. 대공황과 전지를 제외하면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꾸준히 앞도한 것이다. 국민 전체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자본이 증식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자본을 가진 사람의 재산 증식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의미이다."
〈박피사·1만7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월 최시형 평전

김상용 지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무고히 해치지 마라. 만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자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 것과 같다."
동학사상 핵심은 '생명'을 중시한다는 데 있었다. 수운 최재우에 의해 창조된 동학은 '사람은 누구나 하늘을 모시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하늘의 도를 추구했다. 동학사상은 조선 말기 도란에 빠져 있던 백성들에게는 한줄기 빛으로 다가왔다. 신분제와 외세의 침탈이라는 위기 속에서 '누구나 하늘을 모시고 있는 위대한 개인'이라는 깨달음과 가르침은 큰 위안으로 다가왔다.
동학의 2세 교주인 해월 최시형의 사상과 삶 등을 집대성한 책이 발간됐다. 독립운동사 및 친일반민족사 연구자인 김상용이 펴낸 '해월 최시형 평전'은 인간의 평등함, 자연의 소중함을 철학의 뿌리로 삼은 최시형의 사상을 담고 있다.
독립기념관장과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을 지낸 저자는 역사 바로세우기와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들의 평전 등을 꾸준히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해월 최시형의 사상에서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환경 대재앙의 해법 등을 전한다. 특히 '땅에도 하늘이 담겨 있고 우리가 먹는 밥 그릇에는 모든 생명이 담겨 있다'는 생태 생명주의 사상을 조명한다. 핵전쟁 위기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최시형의 사상은 많은 생각거리를 준다.
최시형의 생명주의 사상은 후일 한 살림공동체 설립자인 무위당 장일순을 비롯해 김지하 시인의 생명주의 철학에 영향을 끼쳤다.
〈미디어 샘·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계속 그려나가는 마음

조성준 지음

책의 표지로 삼은 그림 '회화의 알레고리로서 자화상'은 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대표작이다. '홀로페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로도 알려진 그가 표현한 유디트는 클립트 작품 속 유디트와는 확연히 다른, '강인한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서양 미술사 최초의 여성 화가이자, 그림 스승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고문을 당했던 그는 예술로서 세상과 맞섰다.
현재 일간지 기자로 역사에 남은 예술가의 일과 삶을 다룬 '예술가의 일'을 쓴 조성준의 새 책 '계속 그려나가는 마음-잊지 않을 화가들, 그들의 삶과 그림 사이'는 '사나운 운명에도 결코 시들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피워낸 화가' 22명에 대한 이야기다.
앙리 마티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오귀스트 르누아르, 잭슨 폴록, 살바도르 달리, 앤디 워홀 등 잘 알려진 인물부터 힐마 아프 클린트, 그렌 폰 조프름은 낯선 작가들과의 만남이 흥미롭다.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지만 천진난만한 그림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모드 루이스, 존재하지 않는 풍경이나 피사체를 실제로 눈앞에 있다고 여기며 그린 '환시 미술' 작가로 '세 번 보면 죽는 그림'으로 알려진 폴란드 출신 스킷스와프 백스키의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저자는 "진창에 빠지고도 버텨내며 기어코 앞으로 나아가는 예술가들의 이야기엔 분명 무언가가 있고, 그런 화가가 남긴 그림 한점은 바닥에 떨어진 오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말한다.
〈늘와·1만8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